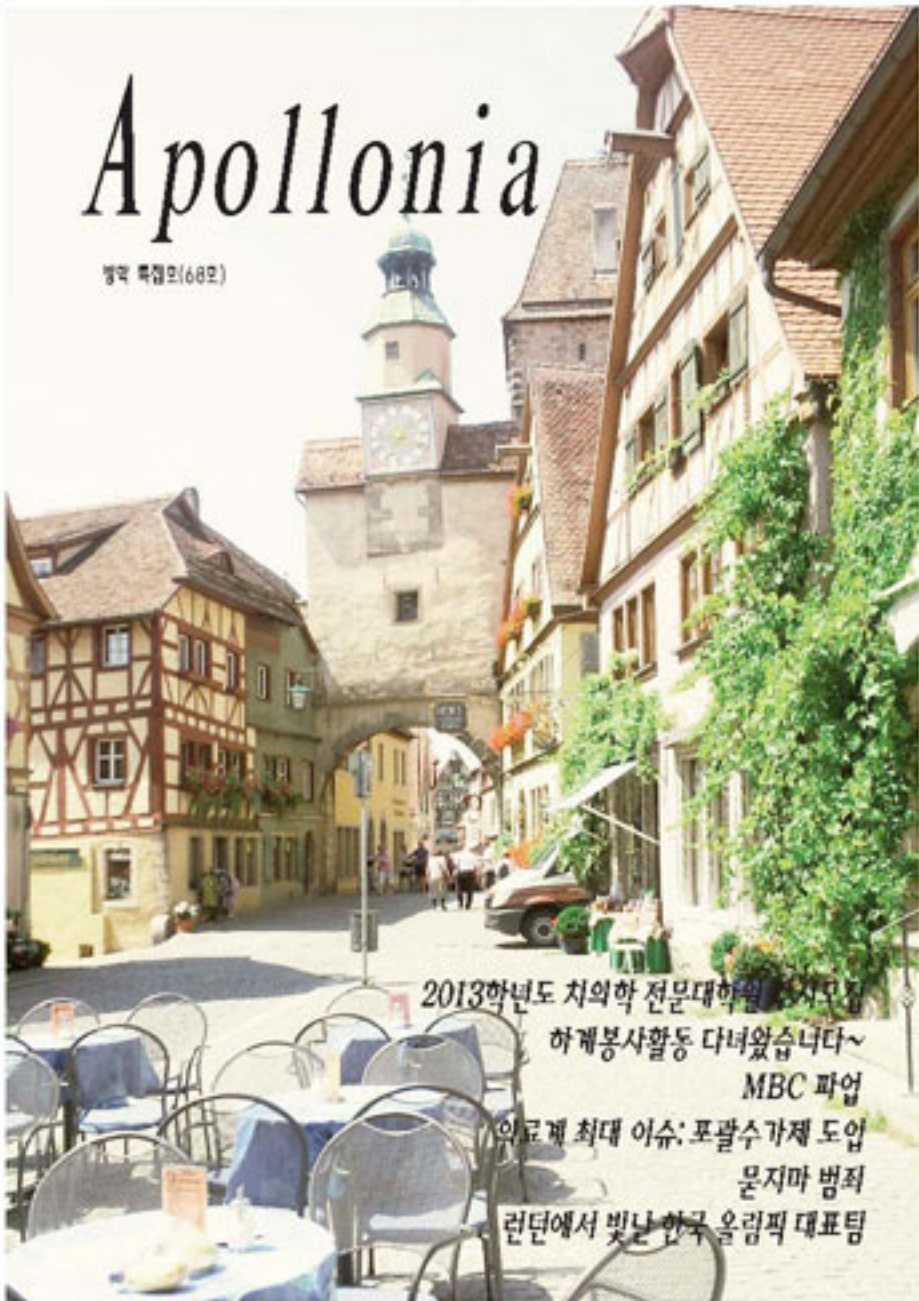


Apollonia

영국 특집호(68호)



2013학년도 치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자 모집

하계봉사활동 다녀왔습니다~

MBC 파업

의료계 최대 이슈: 포괄수가제 도입

문지마 범죄

런던에서 빛날 한국 올림픽 대표팀

CONTENTS

2012 09 VOL. 68

창간: 2012년 9월
 발행인: 송근래 원장
 주간: 최갑석 교수
 과년어: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신문사
 편집장: 이지은A
 편집부: 박정현 오병철 노주승 이승엽 현서영
 문화부: 윤다래 정진영 김창수 심재용 최윤정
 보도부: 공미선 김신영 김은경A 황이진 정광연
 사회부: 서경덕 고철민
 수습기자: 박지영 배성철 윤재희 정원혁 정원주
 한어름 황철환
 표지 사진 최윤정/ 편집 노주승

표지 설명: 독일 로텐부르크 마을의 거리
 ▼ 프랑스 파리의 사랑의 벽 앞에서 만난 아이

- 03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3학년도 수시모집 노주승, 박지영
- 04 하계봉사활동 다녀왔습니다~~ 정현주, 배성철, 이현호
- 06 구강해부학교실에서 청소년 과학교실 개최 심재용
- 06 이열희 명예교수님 타계 심재용
- 07 삼성전자 VS 애플, 미국에서는 삼성의 완패 이지은A
- 08 MBC 파업 금강수
- 10 묻지마 범죄 고철민
- 12 계속되는 전력난 황이진, 정원혁
- 14 의로게 최대 이슈: 포괄수거제 심재용, 배성철
- 16 여름 방학, 여행을 다녀와서~ 최윤정, 한어름
- 18 런던에서 빛난 한국 올림픽 대표팀 이지은A, 윤재희
- 20 화이트닝 화장품 정원주
- 22 사회인 야구의 세계 박지영
- 23 헬스보이 황철환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3학년도 수시모집

-전국 평균 경쟁률 4.18:1, 수시 선발인원은 매년 늘어

글 노주승, 이지영 / 편집 노주승



1.교과별 면접 순서를 기다리는 지원자들

2012년 8월 11일,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우리 학교)의 2013학년도 상임생 모집을 위한 수시 구술 면접이 우리 학교 1층 대강당과 8층 등에서 진행됐다. 올해 2013학년도 입시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40명을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 20명을 선발하여 수시모집의 인원비율이 예년에 비해 높아졌다. 세부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일반전형 20명, 대구·경북지역 고교/대학교 출신자전형 19명, 복합학위과정(DOS/Ph.D)전형 1명 이었으며 복합학위과정(DOS/Ph.D)전형 합격자가 없을 경우 대구, 경북 지역 고교/대학교 출신자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한다.

우리 학교의 경우 지난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원서접수를 하였고, 지원자들의 제출 서류를 심사하여 선발된 1차 합격자들의 명단을 7월 27일에 발표했다. 원서접수가 모두 끝난 후 프라임MD에 따르면 경쟁률을 발표한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5개 대학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전체 지원자 수는 524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3.52:1로 나타났다. 프라임MD는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은 경희대와 서울대, 연세대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 경쟁률은 지난 해 4.18:1(경희대, 서울대 대표합)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부산대학교의 국내대학 자연계출신자 전형으로 13명 모집에 총 110명이 지원해 최종 경쟁률 8.46:1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조선대학교 자연계 출신자 전형 6.25:1, 경북대학교 복합학위과정 전형 6:1, 전남대학교 일반전형 3.68:1 순으로 경쟁률을 나타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전체 모집인원 대비 수시 모집인원 비율은 2010학년도 31.7%, 2011학년도 45.1%, 2012학년도 52.6%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역시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60.2%로 나타났다. 또한 연세대와 전북대에 이어 경희대도 올해부터 모집인원 전원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한편 우리 학교는 DEET 성격 발표 후인 10월 5일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모든 수시모집 일정이 종료되고 난 후 10월 말경 시작된다.

대학	구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2013 경쟁률
경희대	일반	20	25	1.25:1
	대구·경북지역 고교/대학교 출신자 복합학위과정(DOS/Ph.D)	19	52	2.74:1
경희대	일반	80	비공개 (850명 지원 추정(2.83:1))	
부산대	연세대	3	20	6.67:1
	국내대학출신자	13	120	9.23:1
서울대	일반	60	비공개 (150명 지원 추정(2.50:1))	
	부산대학 일반전형	30	비공개	
전남대	일반	19	30	1.58:1
	공주·연남·제주지역소재 고교 출신 및 타 지역 대학 출신 학생부우수자	14	25	1.79:1
전북대	일반	30	87	2.90:1
	전북지역 대학 졸업자	6	32	5.33:1
조선대	전북지역 고교 졸업자	4	32	8.00:1
	자연계 출신자	20	125	6.25:1

대학	2단계 합격자 발표	인원	최종 합격자 발표
경희대	7.27	8.11	10.5
경희대	8.10	9.06	10.12
부산대	8.10	9.1	10.5
서울대	9.7	9.22	10.19
연세대	7.20	7.28	10.5
전남대	7.13	7.28	10.12
전북대	7.13	7.28	10.9
조선대	7.20	9.1	10.4

다녀왔습니다~

글 김현주, 박성필, 이현호 / 편집 한세영

8월 3일부터 4일까지 여름에 걸쳐 항공산 자유재활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항공산 자유재활원은 지적장애우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KDFFA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이곳을 방문하여 진료봉사를 해왔다고 한다.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는 1학년은 2학년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불소도포, 구강위생교육, 진료서비스로의 연계, 생활봉사 등을 하였다. 3학년 선배들은 구강진료와 차팅(charting), 그리고 4학년 선배들의 진료를 보조하였다. 이번에는 KDFFA의 새 지도교수님이신 이재욱 교수님께서 언더·레지던트 선생님들과 함께 직접 병문해 주셔서 진료봉사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다. 봉사활동 이틀째에는 1,2학년이 진료서비스에서 4학년 선배들의 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총고 나온 진료서비스지만 우리 1학년들은 4학년 선배들의 화려한 솜씨를 지켜 보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몰랐으며, 그동안 진료실 밖에서 만나왔던 선배님들에 대한 또 다른 모습에 경이런 인상을 받았다. 또한 나도 3년 후에는 차관 멋진 솜씨를 할 수 있는 지과의사가 되어 있었지! 한 자신감을 거뒀다.

봉사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지적 장애우들을 진료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장애우들을 진료한다는 것이 아주 곤란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학생 선배들의 진료를 할 때 큰 어시를 얹어 잘 협조해 주어서 다행이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처럼 지극진료에 두려움을 갖던 환자들도 선배들의 차분한 설명과 격려에 순조롭게 진료에 응해 주었다. 이번 학생봉사활동을 통해 어린아이들같이 태 문지 않고 순박하지만 한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지난 학기동안 무수히 많은 시험과 백번의 수업 속에서 지친 내 마음까지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내년에 다시 이곳을 찾을 때까지 1년간 열심히 공부하여 이곳의 장애우들에게 더 나은 진료봉사를 하여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왼쪽 진료하는 모습 (KDFFA)

오른쪽 진료하는 모습 (HWR)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남 창원군 이방면 우안 마을로 HAR 여름봉사활동을 하였다. 봉사 첫째 날에는 1, 2학년들이 중심이 되어 산도희 학교로 날라갈려 친 이방 초등학교에서 불소도포 및 구강 보건 교육을 시행하였다. 둘째 날에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진료봉사를 시행하였다. 1, 2학년들은 어르신들 만나, 필요한 기구 준비 및 소독을 중심으로 하였고, 3학년들은 대상자 차팅과 진료 어시스트, 4학년들은 진료서비스 내에서 실제 진료를 진행하였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어르신들을 대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차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어르신들과 직접적으로 진료와 관련된 대화도 많이 하고, 봉사다운 봉사를 하는 것 같이 선배들이 꾸밈기도 하였다. 1학년들은 지과 진료와 관련하여 아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르신들 면담을 하는 것이 전부지만, 그것으로도 전체 진료를 수월하게 진행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임했다. 어르신들이 손내 치과까지 기기가 함들었는데 어떻게 병문해서 빠우시 참으로 좋다며 연신 고맙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감사 인사를 받는 것 같이 송구하였다. 다음날에는 진료해 더 많이 참여하여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집에서 달근 식혜를 가지고 나오셔서 시원한 한잔씩 하라고 하는 모습에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을 느낄 수 있었다.

봉사가 끝나고 김진수 교수님과 하교연들이 함께 모여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교수님이 혁신 영음이 기억이 난다. 1학년들의 소감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음년에는 제대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교수님께서는 '봉사라고 해서 한자 없애서만 하는 거정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1, 2학년들의 이러한 봉사 정신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법도 못 먹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도 봉사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다. 봉사라는 것이 꼭 환자를 진료하는 것만이 봉사자 아니다. 내기 있는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한다면 그것도 봉사활동이고, 봉사활동이 잘 실행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도 일종의 봉사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마음으로 적지않은 힘을 보태어 진료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

청소년에게 치의학도의 꿈을!

-경복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청소년 과학교실 개최

글 정재훈 / 편집 이은영



▲ 치아 발달 과정에 대해 설명중인 2학년 임상실 교수 ▲ 골 구조에 대해 설명중인 1학년 이상훈 교수

지난 7월 13일 경복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문) 1학년 김의실과 실습실에서 구강 해부학 교실(교수: 배용철, 김은숙)이 주최하는 청소년 대상 과학교실이 열렸다. 이례의 치의학도를 희망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중학생들은 이 자리를 통해 치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해부학 강의의 미리 만나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 날 오전 형사는 배용철 교수의 유치 및 영구치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강의와 장의응급 시킨으로 시작하였다. 배용철 교수님께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례도 높은 강의와 함께 학생들에게 "공부의 끈질긴 습관을 갖고 계속 질문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꿈을 키울 것을 강조하셨으며 이에 참가한 학생들은 많은 질문으로 화답하였다. 이후 오후 행사에서 학생들은 4개 조로 나뉘어 각각 치전문 1, 2학년 교실원들의 도움으로 1) 치아의 성장 과정 2) 전신 골격 3) 첫출절 교육 및 치태의 확인 4) 현미경을 통한 치아의 단면 구조 관찰을 병행하며 참여하였다. 2학년 윤성애 학생은 치아의 성장 과정에 대한 설명을 알아 나열한 치아 모형에 학생들에게 치아의 발달과 치아의 구조 및 중추의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2학년 박희지, 1학년 이상훈, 정현주 학생은 전신 골격을 알아 골 모형으로 사람의 골 구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곡물과 같이 전신의 골 위치 및 연결 방법 등을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2학년 김은경, 1학년 이상훈, 손준재 학생은 첫출절 교육을 담당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치태검색제를 이용하여 서로 간의 치태를 확인하고 자신의 첫출절의 잘못된 점을 찾고 올바른 첫출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대원중학교 박준우 학생은 "첫출절은 일상적인 생활이지만 쉽게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을 친구들과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토론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오후 형사의 마지막 코너인 현미경을 통한 치아의 단면 구조 관찰은 2학년 김광희, 1학년 박미주, 장한솔 학생이 진행하였다. 참가 학생들은 직접 현미경을 조작하여 치아의 미세 구조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대원중학교 최도은 학생은 "치과 의사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지만 오늘 행사를 통해 좀 더 꿈을 키울 수 있었고 자꾸 더 치아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오늘 배운 것들을 우선해서 공부하는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 싶었다.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도운 1학년 장정진 학생은 "여러 학생들이 오늘을 계기로 치과 의사의 꿈을 열심히 키워 후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스스로도 작은 힘이지만 교수님들과 함께 여러 학생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열희 명예교수님 타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글 정재훈 / 편집 이은영

지난 8월 9일, 이열희 명예교수님께서 향년 89세로 타계하셨다. 고인의 빈소는 영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련되었지만, 경복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1층에도 특별 분향소가 마련되어 교수와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하였다.

발인 날인 11일에는 유족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다. 송근래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은 추모사에서 "경복대학교 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 이열희 명예교수님의 뜻을 기리며, 교수님을 잊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으며, 유족 대표의 답사 및 영동 묵념의 시간 등을 거친 뒤 화원음의 고인의 산신소로 이동하여 장례 절차를 마쳤다.

고 이열희 명예교수는 '백이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유명한 고 이상화 시인의 가족으로 대구에서 출생,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후 경복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 및 졸업하였으며, 졸업 후 경복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재직 중 1974년 의과대학 내에 치의학과를 신설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치의학의 개척 후 초대 치의학 학과장, 치과대학 본리 후 초대 치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학술적으로도 치의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다. 1962년 대한치안연성생태학회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치안연 부위원 최신희 교수에 관한 토론과 국제 교류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삼성 vs 애플

미국 지역법정에서 삼성의 완패

글 이기BA / 편집 한세연

판결

지난 1년 4개월에 간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이 애플의 승소로 끝이 났다. 미국 세너테이 지역법원 배심원단은 8월 24일(현지시각) 인용장으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에 애플은 삼성전자의 어떤 특허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맺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에 약 10억 5천만 달러(1조 1천 900억 원) 수준의 피해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미국 세너테이 지역법원은 삼성전자 제품에 애플의 사용자 조작환경(UI) 특허와 디자인 등 총 6가지 측면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결했다. 순가적으로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확대하는 기능과 두 순가적으로 화면을 확대하는 '핀드 줌' 기능 등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애플이 애플이 주장한 7가지의 특허 침해 중 '갈라색틀 10.1 디자인이 애플 제품을 카피했다'는 주장만 기각한 셈이다.



삼성전자 원태의 이유

이런 재판이 열린 장소는 애플의 홈그라운드였다. 세너테이 법원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어떤 판결에서든 무시 못 할 요인이었다. 미국 재판의 배심원 제도도 승패를 판기를 짓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배심원 제도는 일반 상식적인 기준에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는 전문적인 영역의 소송에 대해서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기술의 세세한 사항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보겠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에 의존하는 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재판에서 삼성이 애플에 대해 내세운 것은 3G 통신 관련 기술 특허 부분이었다. 반면 애플은 디자인과 기능을 앞서 특허심원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 애플은 삼성에 대해 '5

년에 걸쳐 개발한 제품을 삼성이 3개월 만에 복했다'라고 주장하여 배심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었다.

전략상으로도 삼성전자의 열세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삼성은 통신특허를, 애플은 디자인과 기능 특허를 내세웠다. 삼성전자의 통신특허 주장에 대해 애플은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 조항을 적용하여 배제시킬 수 있는 구멍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과 관련된 '드레드 드레스(Trade Dress: 상품의 외관 또는 느낌을 요망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를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애플이 확보해 둔 자사 제품의 기능과 비교한 삼성 갤럭시 폰 개발 초기 메모 역시 삼성전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의 전망

삼성전자는 이번의 판결에 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없게 혁신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반면 애플은 "필요는 오히려 없다는 분영하고 강한 메시지"라고 환호하였다.

배심원 판결이 대법 법원의 최종 판결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 '공정복합법심리(UMOL)'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번 재판으로 인해 '카피캣'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애플' 전쟁에도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한편 애플은 이번 배심원 판결에서 '등근 모서리를 가진 사각형 형태'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았다. 만약 최종 판결에서도 이 특허가 인정된다면, 향후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른 스마트 폰 제조사들은 스마트 폰의 외형 변화에 대해 해결책이 없게 된다.



▲애플의 아이폰3GS와 삼성의 갤럭시S



우리에게 ‘무한도전’을 許(하)하라!

홍길영 / 편집 노주홍

공중파 방송사 MBC 노조의 파업이 시작될지 170일 단인 지난 7월 18일 끝났다. 아이러니 하기도 국민들은 MBC 노조의 파업보다는 인기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을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에 더욱 분노했었다. 사상 유례가 없었던 이 긴 파업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아직 남은 숙제는 무엇인지 되짚어 보자.

▼ Past MBC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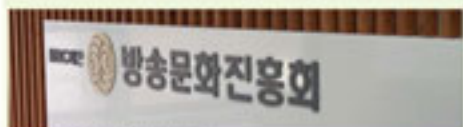
일단 이 파업을 이해하기 전에 KBS, SBS와는 다른 MBC의 특별한 이력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다. 현재 MBC 주식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 70%, 청수장학회가 30%를 소유하고 있다. 방문진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 단체로 지분의 70%를 소유한 대주주에게 MBC를 공영방송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MBC가 공영방송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원래 MBC는 부산에서 지역방송으로 시작한 부산문화방송이 모태다. 최초의 지역 민방인 셈인데, 1950년대 당시 부산의 기업가 김재철 씨가 방직사업 등을



▲ 방문진으로 설립되기 전 김재철 선생의 동상과 지난 공영파업시

통해 번 돈으로 장학 사업 및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 자금을 출연한 부일장학회가 부산문화방송 지분의 30%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내세우며 언론장악을 위해 강제로 국가에 헌납을 받은 후 5.16 장학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다. 이후 이 장학회는 박정희의 '정'과 육영수의 '수'를 따 청수 장학회로 이름만 바뀐 채 지금까지 MBC 지분의 30%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이 1995년부터 10년 정도 이사장을 맡았었다. 나머지 MBC 지분의 70%에 대해 살펴보자. 198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얻은 전두환 정권이 언론 길들이기



▲ 문화 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원에서 언론통제법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고육보협(현. 고보생명) 등의 회사가 소유한 MBC 지분 70%를 강제로 기부채납 받은 후 KBS가 이 지분을 관리하다가 이후 방송민주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특별법을 통해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분을 인수 받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때 경영진에 대한 제재권의 독립성보장이 규정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렇게 두 번이나 정권에 의해 지분을 빼앗겼다가 6월 행방과 같은 민주회 투쟁을 통해 70%를 되찾아온 이력 때문에 MBC는 정권에 날카로운 비판을 할 수 있었고 노조는 강성을 펼 수 밖에 없었다.

▼ 파업의 발단

방문진은 정권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압력으로부터 MBC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일종의 완충역할을 해왔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공기업 시장의 강제 사퇴 및 물갈이를 통해 방문진 이사회 구성원이 친정부 인사로 채워졌고, 결국 방문진은 MBC에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여 친정권 성향의 제작 본부장과 보도본부장을 임명하여 당시 인기형 사장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다. 이들은 권유병 파동에 대한 PD수첩 방송 및 각종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막으며 언론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인기형 사장이 사표를 내고 후임으로



▲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의 피켓 시위

낙하산을 탄 김재철 사장이 새로이 MBC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MBC노조는 지난 1월 30일 김재철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 170일간의 싸움



▲ 파업 100일 기념 달빛 호프 포스터

파업 170일 동안 노사 양측은 서로 한 치구었나 싶을 정도로 치열하게 난타전을 벌였다. 사측은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인 2월 15일 사측은 노조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노조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3월 6일에는 노조에 3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으며, 같은 달 12일에는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했다. 6월 22일에는 노조 집행부 대상 손해배상소송액을 195억으로 상향했다.

사측의 징계 또한 가혹적이었다. 3월 5일 노조 간부 8명 중징계를 대상으로 박성호 기자회장과 이음하 노조홍보국장을 해고했고, 수십 명을 중징계에 처했다. 징계가 일반적일 만큼 그 징계 수위는 높았다. 파업에 동참한 지역MBC 노조원 28명도 추가로 징계했으며, 사측은 노조가 업무에 복귀한 지경까지도 추가 징계를 경고하고 있다.

사측의 초강경 대응에 맞서 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재철 사장의 법안 카드 수습엔 톰 사용내역 의혹을 제기했으며, 김재철 사장이 무용가 J씨와 그 오빠에게 온갖 특혜를 줬다는 것도 폭로했다. 특히 회사 법안커드로 자신의 고향친구 및 지인들에게 상품권 및 공연티켓을 제공하며 퇴임 후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파업은 기존의 파업과는 사뭇 달랐다. 최양구 앵커를

비롯해 MBC 국장, 부장급 보직간부 수십 명이 파업 중인 노조로 합류했으며, 노조의 파업연원은 초기에는 500명이었지만, 나중에는 800명에 육박했다. 지역MBC 조합원까지 합치면 무려 1300명에 달하는 인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 국민의 여론을 얻기 위한 신경전

이번 파업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국민의 여론을 얻고자 부단하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노조는 파업을 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방송을 했다. 바로 온라인 방송이었다. 팟캐스트를 통해 파업세상 M 등을 방송하였으며 노조가 만든 '재대로 뉴스데스크', '파워업 PD수첩' 등은 인터넷에서 수십 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누리꾼들의 인기를 얻었다. 또한, 언론노조와 파업 중인 언론사들과 함께 '으랏차차 MBC', '방송 낙하산 퇴임 축하쇼',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등 대형 콘서트를 기획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얻었다. 게다가 아나운서가 명동거리에서 프리허그를 하는 등 그야말로 국민의 여론을 얻기 위해 모든 활동을 펼쳤다.

사측 또한 나름대로 여론전에 나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27일 실린 김재철 사장 영의 신문사 전면광고다. 이 광고에서 사측은 노조의 파업을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하고, 때문에 어떤 정치인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 끝나지 않은 싸움

지난 6월 29일 여야는 개헌협상에서 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MBC 노사문제를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노조는 이를 새 방송진 이사회가 김재철 사장을 해임 또는 사퇴 형식으로 퇴진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복귀를 선언했다. 하지만 아직 김재철 사장은 물러나지 않고 있으며 복귀한 노조원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징계가 계속되고 있다. 노조는 재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등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은 형세이다. 오는 12월 19일은 꼭 투표해서 무한도전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지고 볼 것이다.



▲ MBC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시위



잇따라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공고원민 / 편집 이순영

'묻지마 범죄'의 양상!!

최근 들어 불특정연인을 대상으로 한 우발적인 범행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8월 18일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선 운모(39)씨가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커터칼에 시민 8명이 중상을 입었다. 22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최근 시건대에 길부림 난동여 일어났다. 김모(30)씨가 칩장 동료 2명을 칼로 찌르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행인 2명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전날인 21일 울산에서도 여모(27)씨가 동네 슈퍼마켓 여주연의 배를 칼로 찌른 사건이 벌어졌다. 물론 세 사건 모두 명확한 범행동기는 없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직자가 저질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연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시건대화 장소에서 범행을 했다는 것이다.

올해 발생한 주요 묻지마사건 요약

연일 서울 용무주

연일(27)씨가 연일(27)씨를 찌른 후 피를 묻힌 채로 도주한 후 서울 용무주역에서 1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다.

연일 서울 용무주

연일(27)씨가 연일(27)씨를 찌른 후 피를 묻힌 채로 도주한 후 서울 용무주역에서 1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다.

연일 서울 용무주

연일(27)씨가 연일(27)씨를 찌른 후 피를 묻힌 채로 도주한 후 서울 용무주역에서 1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다.

연일 서울 용무주

연일(27)씨가 연일(27)씨를 찌른 후 피를 묻힌 채로 도주한 후 서울 용무주역에서 1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다.

연일 서울 용무주

연일(27)씨가 연일(27)씨를 찌른 후 피를 묻힌 채로 도주한 후 서울 용무주역에서 1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다.

연일 서울 용무주

연일(27)씨가 연일(27)씨를 찌른 후 피를 묻힌 채로 도주한 후 서울 용무주역에서 1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다.

연일 서울 용무주

연일(27)씨가 연일(27)씨를 찌른 후 피를 묻힌 채로 도주한 후 서울 용무주역에서 1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다.

연일 서울 용무주

연일(27)씨가 연일(27)씨를 찌른 후 피를 묻힌 채로 도주한 후 서울 용무주역에서 1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다.

연일 서울 용무주

연일(27)씨가 연일(27)씨를 찌른 후 피를 묻힌 채로 도주한 후 서울 용무주역에서 1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다.



회환하기 이후 시작된 고용 불안과 경제 양극화는 묻지마 범죄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용의자의 계획없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은 1994년 23만8646건에서 2010년 35만 6152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시달린 2009년(44만 8420건)이 가장 많았다. 또 1997년 외환 위기 직후인 98년(29만 9543건)부터 2001년(38만9195건) 사이에도 우발적 범행이 가파르게 늘었다.

묻지마 범죄자는 대체로 사회의 경쟁구도에서 탈락한 소외 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개인적 고통을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적 행위로 포효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의정부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유씨는 중학교 중퇴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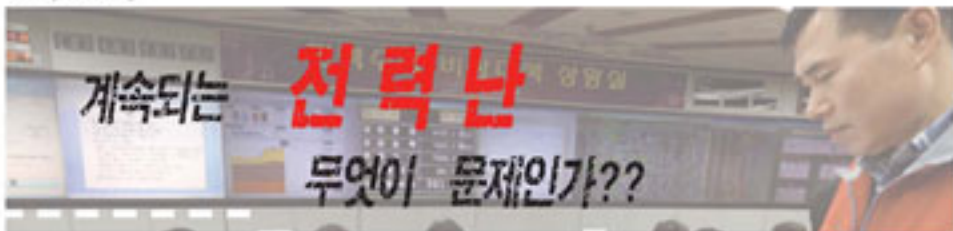
력에 최근 10여 년 동안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일용직 노동자였다. 여의도에서 칼을 휘둘렀던 유씨는 김씨도 최근 직장을 잃고 신용불량자로 추락했다. 슈퍼마켓 여주연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씨 역시 중학교를 졸업하고 3년 전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자신의 상대적 박탈감을 사회 여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건은 온전한 장소보다는 오히려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기 쉽다. 이른바 사회적 낙오자들이 우리 사회를 향해 발하는 열등의 공격적 불만 표출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는 장소화 대상을 가리지 않으며 치안강화 등의 형사정책 차원에서 의법해도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여의도 흉기부 난동 사건 용의자 김모씨
▲ 의정부 역기 난동 사건 용의자 유씨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와의 상관성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사회적 소외계층이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한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떨어져서 먼 타국에 와서 문화적 충격과 소외감, 외로움의 복합되어 사소한 곳에서도 쉽게 범행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대표적으로



▲ 송기진, 정인영 / 연합뉴스

현재 전력 소비 상황은??

올년 한여름을 더워 여름,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에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8월 6일에는 작년 9월 15일 폭염어울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력 비상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하기도 했다. 이는 냉방전력 수요 급증(최대 전력수요 7481만kw, 예비전력 264만kw, 전력예비율 3.53%)으로 전력 수급에 이상이 걸릴 것이다. 그 외에도 전력수요는 산사태 줄어들지 않아 전력수급 불균형은 계속 되었다. 다만, 대형이도 폭염어울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올 여름을 무사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력당국은 폭염이 들러난 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9월이 되면 공급은 크게 줄어들지만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9월 3일, 고리 3호기가 정기 점검에 들어가면 전력 생산은 95만kw가량 줄어든다. 그 외에도 9월 한 달간 모두 34개의 발전소 점검 계획이 잡혀 있다. 그럴 경우 8일보다 하루 360만kw의 전력 생산 감소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여름 더위는 9월 9일까지 이어지거나 더워서 전력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다. 작년 9월 폭염어울 사태를 겪은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따라서 전력거래소는 작년처럼 늦더위 때 하루하루 감리지 않도록 하루 비상 전력수급기간을 오는 9월 22일까 지로 늘렸다.

최대전력수요와 예비전력 추이 (단위:kw)		
날짜	순간 최대전력수요	예비전력
8월 6일	7481만	264만
8월 7일	7418만	273만
8월 9일	7357만	352만
8월 13일	6906만	747만
8월 16일	6950만	764만

▲ 2012년 8월 수요전력계와 예비전력(자료: 전력거래소)

국가별 에너지 순위('09년, IEA)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에너지소비 (백만toe)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브라질	한국
	2,284	2,116	687	621	496	335	267	266	249	227
석유소비 (백만t)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사우디	독일	한국	브라질	캐나다
	843	405	198	149	125	122	114	104	104	97
전력소비 (TWh)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독일	캐나다	프랑스	한국	브라질
	4,156	3,252	1,031	941	645	587	568	494	430	429

출처: IEA, 2010 Key World Energy Statistics,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우리나라 전력 소비증가량은??

● 각국의 전력소비 연평균 증가율('00~'09, %)



한국의 경우, 2009년 이후에도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하며, 2010년에는 전년대비 10.1%, 2011년에는 4.8%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GDP대비 전력소비량은 계속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2009년부터는 겨울철 피크사용량이 오히려 여름철 사용량을 넘어섰다. 동절기라고 전력난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력 위기가 커진 이유는 고온기 때문에 가스난방이 전기로 난방을 쓸 수 있는 시스템에 이전은 전력 소비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때문에 전력수요가 거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력수급 불균형의 문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으며 산사태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서 작년과 같은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9510 kWh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일본 8110 kWh, 프랑스 7894 kWh보다 높은 수치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6%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발전기의 공급능력에 연인 4%의 증가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9월 15일의 폭염어울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역시 수요에 맞춰 생산한 늘리다 이상기온에 대응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각 기업체나 가정,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수요를 줄여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계속 에너지로 날-불을 끄고 물을 켜다' 행사 전 서울 시청 건물



행사 중 서울 시청 건물

저기 저만큼 이력저~~!!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전기를 적게 쓰도록 권리해 전력 예비력을 높이는 것은 수요관리라고 하는데, 이는 세부적으로 비상상황에서의 부하조정과 정전으로 할 수 있는 효율 향상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는 비상상황 때 부하경리 등을 통해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일상에서의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예비력 확보가 쉽지 않고 있다. 이러한 예비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일선기 설치 권고와 전력 피크 타임에 전기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분산형 전력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절전기술과 상품 개발에 힘 쏟는 것은 물론, 대기전력 줄이기와 에너지 절감형 건축 시스템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력당국은 8월 17일까지를 제3기 '국민절전소' 건설주간으로 지정하는 등 대인 홍보를 벌였다. 국민절전소는 국민이 절전을 실천할 경우 일전소 건설과 닮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물 여름 지식경제부가 펼친 대국민 절전 캠페인이다. 8월 22일에는 에너지시민연대가 주관하는 '계속 에너지의 날-불을 끄고 물을 켜다' 행사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추가철이 끝나고 본격적인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8월 첫째주를 '에너지의 날 주간'으로 선포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을 위한 실천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절약형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날에는 서울광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행사가 개최돼 2시부터 20분간 에어컨을 끄거나 설정온도를 2℃ 올리고 밤 9시부터

5시간 전등 끄기 등의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전세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계 또한 절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삼성전기, 포스코, 삼성전자, SK에너지,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SK하이닉스 등 17개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위74억 톤원 등을 절감했다. 삼성전기는 지난 6월과 7월 절전위기 극복비상준원을 통해 피크전력 9138MW를 줄였다. 또한 예비전력 200만여 kWh 당에서 86만kWh를 절감할 수 있는 배능실을 만들었다. LG전자는 2만여개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전력사용 모니터링 및 고효율 에너지 저장설비 설치 등이 포함된 에너지관리 통합 솔루션을 보급, 기존 사용량보다 29% 절감하는 효과를 올렸다. KT는 지하 12층 깊이의 통신구(지하 38m)의 환풍기(전동 135)를 잠겨둘어 통신 장비 냉방에 이용하면서 전력도 아끼고 냉방 이용 또한 90% 절감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폐열로 일전소 타원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의 전력 소비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거의 두 배다. 과잉 냉방으로 여름에도 삼나에서 건물 웃을 입고, 겨울에는 차체 난방로 생활하는 전력 과소비 행태를 고치지 않으면 전력난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 확산 사업주요의 불확실성을 경험함으로써 불만함을 겪은 것은 물론, 고품신호 시스템과 주요 산업설비 등이 대규모 정전이라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것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심각성의 인식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 여름철 높은 전기요금에 반동, 에너지의 날을 맞아 절전

기대효과
여름 14일 여름시간 줄이기
날씨 적당도에 맞춰 에어컨 사용 20%, 인건 20%
달라 2주에 한번 절전소지
전세 한번 냉방절감효과

● 에너지
여름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기는 에너지의 날을 맞아 절전소 건설을 시작합니다.

● 전기요금 인상, 냉방도 에너지절약에 동참해 절전

기대효과
절전율은 60%인 여름시간
절전하는 한시 10일 40% 절전효과
냉방도 못 하는 시도는 절전 효과
냉방기는 20만대 구매 통용이 잘 되도록
절전소지
냉방도 절감된 절전소지

● 전기요금 인상
전세 절전율 60%인 여름시간을 줄여 절전소 건설을 시작합니다.

● 조명 에너지절약에 동참하는 여름을 위한 절전

절전방법
24시간을 켜놓은 LED 조명 교체
자동조절 조명등 교체
자동 소등시스템을 활용
조명 스위치는 구획별로 설치
날씨 변화에 따라 조명등 교체
조명기 및 전선반을 자주 점검

● 전기요금 인상, 냉방도 에너지절약에 동참해 절전

절전방법
절전효과가 아닌 절전율 60%인 여름시간
절전소지
절전소지

사회 | Society



* 김대중, 박인환 / 권영진연구소

2012년 의료계 큰 이슈인 드림케어 달근 이슈는 정부의 포괄수가제(DRG :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 도입이 아니었을까 한다. 시행 어드밴스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포괄수가제는 강해진 대로 지난 2012년 7월 1일도의 시행되었다. 포괄수가제 시행 직전 포괄수가제의 시행을 반대하는 의협은 남· 의원 집단 직접 계획이라는 카드를 꺼냈으나 정부의 정책을 굽히기는커녕 국민들에게 상당수의 애국 의술이란 국민과 어른의 자질을 받으며 계획을 철회하였다.

이러한 의협의 입장 신뢰에 정부 역시 당초 이렇듯 7월 1일도의 전국 남· 의원들에 포괄수가제 전면 단행(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카드가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 가지던 임후 긴 갈등은 으레의 전횡된 세습으로 편지는 엉망이다.

포괄수가제란 무엇인가?

포괄수가제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의회비 지불방식이다. 일종의 "입원비 정액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정액된 정액 진료비 산세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입원환자는 진료비의 20%만 본인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포괄수가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가 있다. 이것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난 7월 1일 이전까지 대부분의 병원에서 적용해오던 제도로서, 환자가 진찰을 받으면 진찰료, 검사는 검사료, 처치는 치료료, 입원은 입원료, 약은 약값대로 따로 구분하여 가격을 매긴 후 거기에 검사 등을 곱해 최종 병원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행위별수가제는 의사 또는 병원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한 만큼 정확하게 지불하는 방식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행위별 수가제에는 한 가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데 의사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선문기반 가격을 적용하여 의도적으로 진료행위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환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진료행위를 넘어서는 과잉진료가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진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추가적인 검사과정에서 과다한 방사선 노출이나 과다 항생제 처방과 같은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별수가제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던 문제점이었는데, 많은 의료선진국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선택한 것이 "포괄수가제" 지불방식이다. 현재는 OECD에 가입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행위별수가제 대신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포괄수거제의 장점과 단점

포괄수거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포괄수거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비의 지출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행위별수거제와 포괄수거제의 장점을 살펴서 진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포괄수거로 묶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방지함으로써 보험재정의 낭비를 절감시키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괄수거제를 적용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하지만 포괄수거제가 결코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다. 의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면서 포괄수거제를 반대하고 있다. 첫째는 포괄수거제를 시행함으로써 의료의 질, 즉 치료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포괄수거제가 환자의 검사나 치료, 혹은 치료한 약제 부여를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미리 정해진 가격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가끔적 저렴한 재료를 쓰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능한 검사도 줄이려 한다는 것이 의사들이 주장하는 포괄수거제의 문제점이다.

박영우 서울특별시 의사회 김사는 기고문을 통해 포괄수거제 감행 이유는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수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이라며, 신의료 기술을 포함한 비급여 항목의 증가는 행위별수거제의 한계와 비효율로 인해 비급여를 줄일 수 없게 되자 비급여 항목을 보장성 범위내로 쉽게 편입할 수 있는 포괄수거제를 정부가 다급하게 강제 시행하게 된 근본 이유라고 본다며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보장성 확대를 쉽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포괄수거제를 강행한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포괄수거제의 도입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보다 많은 항목에 적용해 전 의료기관에 확대할 것이고 나아가 언젠가는 더 효과적인 총액제약제까지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수치목표를 쉽게 넘어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포괄수거제에 따른 질환별 총 진료비 단위: 원

※환자는 총 진료비의 20%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출
※유료는 평균급·치외범에 따른 거짓수



▲ 포괄수거제에 따른 질환별 총 진료비

치과와 포괄수거제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포괄수거제는 7개 질병군에만 적용이 된다. 포괄수거제가 적용되는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영장수술, 흉부수술, 심장수술, 자궁수술, 재활일개 분만 등으로 치과 분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포괄수거제는 울 하반기 병·의원급에의 적용을 시작으로 2013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까지 확대되어 적용될 것이고 포괄수거제가 적용되는 질병군도 보다 확대되고 세분화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치료진료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의 대상이 아니지만 값비싼 치료진료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치료진료의 보험항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12년 7월부터 포괄수거제와 더불어 만 75세 이상의 노인들의 완전 불나에는 50%의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써 환자부담금이 50%로 감소하게 되고 불나 장학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권이 제공된다. 특히나 지난 5월 치과기공사협회에서 행위별수가 제에 기반하여 불나 제작에 있어 치과 기공사의 행위별수를 인정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집회를 가진 적이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포괄수거제의 도입 또한 치과제외는 전혀 무관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앞으로 치과회사가 되어 국민들의 구강보건을 책임질 우리 치의사들도 포괄수거제가 국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고 이미 도입된 포괄수거제가 어느 정도의 배럴리거식의 성격이 아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성격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할 것이다.

문화 | Culture

부모님과 미국 서부여행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글 전이쁨 / 편집 노주승

치천원에 입학해서 처음 맞는 방학. 1학기때 모두가 알고 있는 무시무시한 과목들을 힘겹게 공부해내고 맞는 여름연휴다. 오랜만에 맞는 긴 휴가엔 여름방학을 참 지치도록 기다려 온 것 같다. 이렇게 의미 있는 여름 방학을 나는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은 입학 때부터 했던 것 같다. 중학교 졸업 이후로는 여권 지천 여유들로 가족들끼리 시간을 내서 다 같이 길게 여행을 하기가 힘들었다. 대학 시절 긴긴 방학 동안에도 친구들과 놀기 바쁘고 정착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보내지 못했다. 공군에서 복무중인 동생은 여행 수 없어 함께 여행할 수 없어서 미안했지만, 동생이 전역할 때 까지 또 기다리면 그때는 내가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부모님과 나, 이렇게 세명에서 우선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내가 부모님과 이번 여름에 함께 여행하기로 결정한 곳은 바로 미국 서부지역이었다. 동부에 비해 멋진 자연경관 및 구경거리가 많기로 알려진 미국 서부지역은 관광 명소가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모여 있어 열흘이라는 시간동안 어느 정도 둘러보며 관광을 하기가 용이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 시내관광을 하였다. 여름의 캘리포니아는 역시 햇살이 너무 썩었다. 산타모니카 해변에는 선댄을 즐기는 인파로 가득했다. 각종 영화 시상식이 열리는 LA 시내의 할리우드를 구경하고 Dolby Theater로 여름을 비추는 해전의 Kodak Theater도 그 명성 그대로 근사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우리 가족이 가장 기대했던 그랜드캐니언과 오세미티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경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규모와 웅장하고 장엄한 자연의 모습 내려다보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다음 여행지는 라스베이거스였는데, 게임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각지노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술을 마음껏 사기며 칭얼칭얼 칩은 돈으로 셋에 모여 재미있게 게임도 해 보았다.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했을 때는 LA와 달리 색다른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참 실기 좋고 깨끗한 도시였다.

오래간만에 함께한 시간에 부모님께서도 매우 즐거워하셨고, 나도 한국에서의 일을 뒤로하고 타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마셨던 것도 먹고 재미있는 볼거리도 구경하여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친구들과 같이 다니는 여행도 재미있지만 주말이나 짧은 연휴를 이용해서도 부모님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좌충 우돌 유럽 여행기

글 최유정 / 편집 노주희



2학년 여름방학! 어쩌면 마지막 방학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학기가 중간쯤 되면서부터 교실에서 이번 방학은 무조건 재미있게 보내야 한다는 말들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얇은 저도 어떻게 하면 알찬 여름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허련 책에서 밑지가 불려서 돌리오는 듯한 북소리에 이끌려 긴 여행을 떠났다고 했던 기억이 나서 '그래, 어디든지 여행을 떠나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에 가보지 못한 여자들이여 유럽 5개국을 여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위와의 전쟁, 이탈리아

비교적 선선했던 독일, 프랑스, 체코와는 달리 이탈리아는 무더위 그 자체였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이 도보여행이었는데 더운데다가 햇살이 내리쬐니 점점 지쳐가기만 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야, 이것에 첨파니서 하게되는 고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행 14일여만에 심생각이 간질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수성버스를 타고 바라본 석양지는 베네치아의 풍경과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피렌체의 두오모, 도시 전체가 유적자인 로마, 고층스카우에서도 세련된 현대적인 모습을 가진 밀라노 등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진 도시들의 매력에 빠져 더위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경험, 오래 기억될 추억들

독일의 깨끗하고 전원적인 마을 풍경, 파리 상생리체거리에서 활얼이 소망하고 세느강을 보면서 거대한 잔, 무엇보다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스위스 도시마다 특색있고,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이탈리아, 로맨틱한 체코 프라하. 24일간 5개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문화, 사람들을 접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가고 싶은 곳을 지도로 찾아가면서, 예쁜 풍경을 보면 사진도 찍고, 여행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소중한 인연을 쌓아가면서 점차 여행의 재미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유럽에서 만난 동기들

이번 방학을 맞아 유럽으로 떠난 2학년 동기들은 10여명으로 다들 3명씩, 4명씩 삼삼오오 모여 각자의 스타일대로 여행을 즐겼습니다. 가장은 유연이 만나기도 했고, 연락을 통해 하루동안 같이 관광을 하거나 했는데 애들답고 경치 좋은 유럽에서 만난 동기들은 특별히 더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체코에서 하루를 동기들과 보냈는데, 늘 학교에서 하던대로 농담을 주고받고 기뻐비취보로 간식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곳을 보고 좋은 풍경을 보았던 것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여행이 끝난 지금..

여행 막바지에는 늘 그렇듯이 서늘습습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24일의 긴 여행이어서 몸은 지쳐서 짐생각이 간절하기도 하지만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라는 생각에 뒤를 차마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여름방학의 꿈이었던 것 같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내년에도 동유럽쪽으로 가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활기찬 에너지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에 그만 푹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잘 바르면 밝아진다!

공정현주 / 편집이슈

를 여름, 후난히 촉촉했던 무더위를 위해 근래, 해외로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휴가 후 남은 건? 그렇다. 까맣게 그을린 피부와 여기저기 울러온 기미와 잡티들, 피부를 복구해보고자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해보도 뽀뽀처럼 볼까지는 화이트닝 화장품을 좀 어떤 것을 골라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러한 당신을 위해 화이트닝 화장품의 핵심만을 뽑아 이야기하겠다. 일단 화이트닝 제품의 경우, 잡티를 규제를 하나 효과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들 것이다. 하얗고 투명한 피부를 가지기 위해서는 화이트닝 제품을 최소 6개월 이상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긴 인내심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꼼꼼하게 발라주도록 하자. 또한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는 정교한 패키징 화이트닝을 할 것인지, 기미 같은 스팟 부위를 화이트닝 해야 하는지 내 피부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내이커 리퍼블릭]

-화이트닝 클리엔 드림 70 클리어드-



피부를 위한 '이커 클리엔'이 피부 같이 참모하여 잔해물을 제거하며 치환된 C7 함유되어 적정한 피부 온도를 낮추며 투명하게 가꾸주는 토너. 유분감 없이 맑은 피부, 기능성 클리어드 타입으로 피부 온도를 적당하게 시켜준다. 기미 잡티, 울러온 피부 온도를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 준다. 150ml 2만 1천원.

[익셀]

-클리어미트 오백티브 화이트 클레리프-액티베이션 토너-



갈라진 지어다 치환된 액티베이션 C 성분으로 눈여 띄게 깨끗하고 부드러운 피부로 가꾸어 주는 촉촉한 화이트닝 기능성 액션 토너. 150ml 5만 8천원.

[마이크로]

-마이크로 에센스 인텐시브 본디셔널-



화장 습에 적셔 비효는 부스팅 액션으로, 마이크로 향산화 효소가 피부 결을 평탄하고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피부 온도를 낮추고 화사해진다. 168ml 6만원.

[SK2]

-화이트닝 스팟 에센스-



기미의 뿌리까지 효과적으로 작용해 눈에 보이지 않는 피부 속 5배 많은 기미와 울러온까지 피부 안팎으로 깨끗하고 환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에센스. 강력한 로토 클러스 성분은 피로는 순간 촉촉하게 스킨하고, 기미의 뿌리까지 효과적으로 작용해 눈에 보이는 기미, 잡티, 유분감뿐만 아니라 피부 내면까지 순격히 온갖 기미 잡티 없애 피부로 만들어 준다. 30ml 14만 9천원.

[토니오리]

-클로리카 화이트닝 멜로우 에센스-



화이트 필 멜로우 토크를 가지면서 피지와 잔유물을 관리하고 깨끗한 광채 피부로 가꾸주는 에센스. 울러온 색소 침착을 금방 치유시켜 피부와 유익한 성분들을 공급해 칙칙해지는 피부 당화 현상을 막고, 화이트 울러온 클러스 성분과 당알도 오일 성분은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가꾸어 준다. 50ml 2만원.

[슈에우리]

-오로라 에센스-



부드럽게 감칠을 제하고 피부 속부터 영양과 탄력을 채워 피부 같이 부드럽고 매끈해진다. 진노팅은 눈여 띄게 광채를 부여해 피부가 온순하게 변한다. 30ml 9만 8천원.

[익셀]

-클리어미트 오백티브 다크 스팟 울러온-



기미, 잡티, 토너를 자극해 빠르게 작용해 눈에 띄게 깨끗하고 투명한 광채 피부를 선사하는 원동력인 에센스. 30ml 8만 6천원.

[BRTC]

-백티달라이저 화이트 크림-



백티달라이저 화이트 크림과 선택 피부에 스며들어 피부 문제가 한결 완화되고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60ml 3만2천원

알티비타린 이 다기능 성분들이 피부에 바로 스며들어서 각질은 물론 여은 털 수분 크림과 선택 피부에 스며들어 피부 문제가 한결 완화되고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60ml 3만2천원

[동원비씨(KT&G)]

-동원비씨 크림-



좋은 미백크림, 그중중 중의 브라이트 크림 복합체로 피부에 보습과 생기는 물 분 발공까지 완벽하게 제공한다. 60ml 15만원.

좋은 미백크림, 그중중 중의 브라이트 크림 복합체로 피부에 보습과 생기는 물 분 발공까지 완벽하게 제공한다. 60ml 15만원.

[비온도]

-피토 화이트 엘리트 크림-



해 주는 정품 미백 크림, 한 내외도 피부에 흡수되어 스며들어 모든 피부 문제의 근원인 건조를 해결하고, 생지 없이 원하고 깨끗한 도자기 피부를 완성시켜 준다. 55ml 5만2천원.

피복 기능성 성분인 백출 용각 포함된 특별한 phyto white 11 complex와 안티 자외선 테라피의 복합 작용으로 기피, 잡티를 제거

[닥터자르트]

-모스트 화이트 리프트 로우 크림-



지해 주고 매트러는 탄력감을 형성하는 탁월한 필름네트를 부여한다. 또한 silky roll network 기술을 적용하여 각종 보습인식들을 안전하게 피부에 전달해 주고 bio-gum의 보습력을 향상한다. 50ml 5만3천원.

전체 미백 성분 일러키사르올 합성으로 프락시올산, 탄닌산 피부도 안정시키고 세출할 수 있고 기피, 잡티 등의 색소를 경색해 주는 미백 기능성 크림 elastic film network 기술로 피부 내 수분 손실을 방지

[에니스포화]

-화이트 톤젤 크림-



만들어 준다. 또한 유분감을 최소화한 거품그림과 인체 한 수분 자극한 점 타입의 미백크림으로 촉촉하고 투명한 피부를 유지시켜준다. 50ml 2만원.

정품 배리 성분인 한 프락시올산 보아 피부도 자극이 없는 미백 크림. 예외적으로써서 원천한 미백 성분 그 전 유분력스틱 거품화 그 생지 없는 피부를

[SK2]

-화이트팅 스킨 스페셜리스트 액센트세라미드-



보존하여 방사기 커버리 속아내는 원리, 동시에 세로기능을 천연으로 가지면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 흡수되도록 함. 피부안정제에 주유한 28일간의 프로그램. 피부안정제에 주유한 28일간의 프로그램. 피부안정제에 주유한 28일간의 프로그램. 28개 16만5천원.

SK2 액시알 최강 이라 불리는 정품 미백 프로그램, 포피에 모두 흡수 되도록 고안해낸 그중중의 별미 기피를 퇴장하면서 피부의 표면에서 장미 같은 색이 들어있는 상채를

[식세어도]

-멜라노리퀴스 EX 마스크-



이 시작되기 전, 마스크 팩에 포함된 '시그널 슈터' 성분이 기피 생성 차폐를 원천 차단한다. 이의 생지 기피의 경우 멜라닌 색소를 피부 밖으로 원뿔처럼 배출하게 만드는 피부로 이루어진다. 또한, 동양인 성체적 기피가 잘 생기는 커리콜라이 분해 스킨케어 제품 마스크가 겹쳐져 더욱 효과적인 기피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30ml*6개입/12만원.

멜라노인 억제 스 100회분의 팩 1 장에 가득 들어있는 기피 차단 미백 기능성 마스크팩, 테라피 자극 후 기피를 생성하려는 시그널로 인해 피부에 빨간 홍색 부어 빨간 홍색

[네이버 리퍼블릭]

-올라벤 도밍 80 프로그램 앰플-



올라벤액 80%와 아시아 배리 추출 성분 5% 함유된 피부탄력 강화 앰플로 한팩과 도밍을 제로함그림과 함께 피부에 주는 고크림 앰플. 그 중중 미분물리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깊숙이 파로전 흡수되어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며 아시아 배리 등의 영양성분이 피부에 온기를 더하여 맑고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 준다. 9ml*4ea 2만4천원.

'최고, 달려라!' 사회인 야구의 세계



글 박지열 / 편집 이은영

입학하고 처음 반학을 맞이하고 어느새 벅는 듯한 무더위가 지나갔다. 바야흐로 야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가을이 온 것이다. 야구장을 찾는 야구 팬들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국내의 야민 스포츠보다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야구 관련 야구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 야구팬들이다. 야구사랑'에 나뉘는 이유도 있었지만 야구는 다른 구기 스포츠 종목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점! 축구나 농구, 배구 등 야구를 제외한 모든 구기 종목은 시간을 정해 놓거나 일정 장소가 되면 경기가 끝난다. 장소가 크게 넓어지거나 시간이 끝날 즈음에는 역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야구는 이점상으로 야구의 장소가 많이 나고, 시간이 길어져도 역전이 가능하다. 야구는 "9회 말 2아웃부터"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둘째, 특별한 훈련! 모든 스포츠는 일정한 규칙을 갖춘 경기장에서 벌어진다. 경기장을 벗어나게 되면 모두 무효가 되거나 실점으로 처리된다. 야구도 일정한 규칙을 갖춘 경기장에서 벌어지기는 하지만 펜스를 넘어가면 홈런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똑같은 홈런이라도 상황에 따라 적게는 1점부터 많게는 4점까지 한꺼번에 준다. 펜스를 쳐 놓고 그 펜스를 넘어간다고 점수를 주는 경기는 야구밖에 없다.

셋째, 세세한 기록물! 야구는 단체경기이면서도 개인경기의 성격이 강하다.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갖가지 부호로 기록된다. 현존하는 스포츠 가운데 야구처럼 기록물이 정밀화되고 개인화 된 종목은 없다. 이 기록들은 마치 세계를 쳐도 또 다른 세부기록들을 만들어 낸다. 또한 이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타자나 투수의 버릇까지도 알 수 있다. 투수의 투구 궤선은 물론이고 타자의 타구방향, 타자가 좋아하는 코스 등 갖가지 자료들이 만들어진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록의 영속성이다. 모든 구장의 시설과 환경이 다르지만 영속적인 기록을 갖고 세계기록, 아시아기록을 따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일까? 야구의 인기를 타고 방송에서도 '천하무적 야구단'과 같은 예능프로그램이나 '2009 최인준', '9회말 2아웃'과 같은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유명인기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는 야에 사회인 야구를 소재로 삼기도 했다.

이처럼 프로야구를 단순히 보고 즐기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직접 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회인 야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인야구란 무엇이냐?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사회인야구의 세계에 뛰어들겠다는 다짐을 하는 어렵지 않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이 소속할 팀 찾기! 소속팀이 없다면 리그에서 팀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동네 꼬마아이들과 캐시몹이 나 배야 할 것이다. 요즘 운영되고 있는 사회인야구팀들을 살펴보면 같은 직장 동료끼리 만든 팀이거나 학교동문, 혹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만든 팀들이 대다수이다. 이렇게 팀을 구성해야 팀력을 맞추기도 쉽고 연습도 자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대학교 때 직접 팀을 만들어서 사회인 야구를 즐겨오고 있다. 그렇다면 주변에 그런 팀들이 없을 경우 사회인야구를 즐기기 위한 필수조건인 '나의 소속팀'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답은 간단하다. 요즘은 직접 방문을 할지라도 온라인 상에서도 팀을 구할 수 있다. 사회인야구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개입원'에 따르면 2012년 8월까지 13,201 팀이 등록돼 있으며 302개의 리그, 65개의 대회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아홉에 드는 팀을 골라 입단제의를 하면 입단 테스트와 적당한 조건합의를 거쳐 입단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개인 장비! 야구를 할 때 개인장비는 굴러프란 것으로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재는 그렇지 않다. 자신의 손에 딱 맞는 글러브에서부터 보호장비, 신발, 헬멧까지 그야말로 여러가지 발품까지 자신의 장비가 필요한 운동이 바로 야구인 것이다. '야구용품세계사'는 '야구사'라는 예칭으로 더 유명한 사회인야구 커뮤니티다. 사회인야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야구 용품들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야구 용품 중 글러브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입문용 글러브를 살 만 한 3만 원대의 글러브에서부터 장인이 직접 최고급 가죽으로 수작업한 100만 원이 넘는 글러브도 있을 만큼 다양하며, 브랜드조차 어이없게 하다. 따라서 자신이 장비에 문외한이라면 주변에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물인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구입하길 바란다. 이렇게 팀과 장비를 모두 갖추었다면 남은 것은 훈련뿐인데 어느 스포츠가 그렇지 않겠나 야구는 특히 하나하나를 물에 익혀두어야 한다. 수비시에 볼의 궤적을 인지하고 낙구처를 파악하여 안전하게 포구하고, 빠른 속도로 글러브에서 공을 빼 내어 송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동작이 때때로 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복된 연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 리그에 참가하기 위한 사회인야구팀들은 운동장이나 실내연습장을 대여해서 규칙적인 훈련과 강습을 받는다. 물론 그 훈련들이 힘들고 지치지만 리그에 참가하여 내 팀이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느끼는 재미와 희열을 생각한다면 모두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야구를 좋아하고, 직접 운동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더 이상 주저 말고 사회인 야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규칙을 잘 모르고 실력이 없다고 망설임 필요가 없다. 열정과 끈기가 있다면 어느 팀에서든 당신을 스퀴우러 할테니깐!



▲▲ 2011년 명동88리그에 우승한 BALLETS
▲ 사회인 야구인들의 훈련 체육구장의 모습

치절원에서 살아남기 위한 저질체력 극복기!

글: 황영민 / 전담 이상임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기자는 헬스장을 찾았다. 남성이기 물론 좋게져 나오는 멋진 몸매를 만드려는 부른 꿈도 있었지만, 치절원 첫하기를 보 내면서 저질체력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4시간씩 서있는 음식제이션과 새벽까지 이어지는 실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부터 꾸준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다.

체중	62.4kg
골격근량	29.2kg
생지지방량	10.2kg
기초대사량	1958kcal

집과 가까운 곳으로 등록을 하고 운동계획을 짚기 위한 상담을 받았다. 먼저 언버디 검사를 받았는데... 두통... 아무래도 헬스가 처음이었던 탓치고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이 너무 낮았다. 기초대사량 산정 공식 인 Harris-Benedict Equation(B.M.E)방법을 이용하여 남자형상을 구하면 2008.71kcal 인데 기자의 기초 대사량은 1868kcal로써 많은 차이가 났다. 골격근량도 30kg는 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트레이너 분석서는 언저 밥을 많이 먹을 것을 조언해 주었다. 많은 양이 아니라 새끼를 꾸준히 챙겨먹으라는 것이었다. 기자가 어디서 들은 보충제나 달걀흰자 식단에거기를 꺼냈지만 바로 무시당했다... 헬스 처음 한두달은 새 끼 식사 꾸준히 하고 운동을 때워나가는 단계라면서 어질러지 음식조절하면 몸에 안좋은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헬스보물이 유념해야할 시간인 것 같다.

내가 등록한 헬스장에는 많은 운동기구들이 있었다. 트레이너 분석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는데, 크게 유산소운동과 무산소운동을 위한 기구 로 나눌 수 있었다. 나의 운동 목적은 다이어트가 아닌 몸매 만들기였으므로, 유산소운동은 무산소운동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생각하려고 하였 다. 또한 운동전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근육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바로 시작하게 될 경우 근육이 긴장하고 굳게 되어 혈액의 흐름이 빨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전의 스트레칭은 운동을 위한 이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난후 가볍게 몸에 땀이 조금 맺일정도(5분~10분)로 걸어주면 준비완료. 무산소운동은 크게 가슴, 등, 복근, 하체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는데, 큰 근육의 경우 10회씩 4세트에 걸쳐서 운동을 하고 작은 근육 은 무거운 조급 낮추더라도 15회씩 4세트에 걸쳐서 운동하는게 좋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근육은 48시간 정도 후 회복이 되므로 하루걸러 운 동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고, 복근은 특이하게 24시간만 지나도 회복이 되므로 매일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설명을 다 들은 후 기자의 첫 운동이 시작되었다. 들은 마음으로 신나게 운동을 시작했다. 스트레칭에 이은 가벼운 런닝 후 무산소운 동을 하는데 무거운 무게를 내가 들어 올린다는 재미가 붙었다. 통증이 많이 느껴졌지만 견딜만 했다. 첫날이라 무리하지 않고 운동 을 마무리 지었다. 평소 잠을 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오랜만의 운동이 몸과 마음이 피곤했는지 쉽게 잠이 들었다. 다음날... 기자의 몸과 침대가 붙어버린 느낌이었다. 근육들은 기자에게 왜 갑자기 막 노동을 시키고나 단재로 사위를 하듯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충 분한 잠을 잤지만 개운하지 않았고,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다. 운동 시작 후 어쭙할 정도는 평소보다 더 피곤한 느낌이 들었다. 운 동의 효과가 없는건가? 흔재만의 생각을 하며... 어쭙일이 넘어가자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 도 점점 줄어들었고, 근육통도 거의 없었다. 우울한 기분이 들었더 기도 운동을 하면 즐거운 기분으로 바뀌었다.



▲ 1학년 동안은 하루하루 운동 모습

체중	63.6kg
골격근량	29.9kg
생지지방량	10.1kg
기초대사량	1528kcal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언버디 검사를 받았다. 체중도 늘고 기초대사량과 근육량도 늘었다. 조금이지만 평가 결과가 있는 것 같아 뿌듯했다. 트레이너 분석서도 한달정도 더 운동하고 보충제나 식단을 통해 본격적으로 몸을 만들어 보자고 하였다. 앞으로는 꾸준한 운동을 할 계획이다. 아마 다음 방학호에는 before & after 사진을 첨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게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